코난테크놀로지, 2007년도 매출 100억 돌파

- 코난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매출 100억 클럽 가입

(2008년 2월 13일 수요일, 서울) 네이트, 싸이월드, 엠파스, KTF, GSe스토어, 잡코리아, 재정경제부 등 다양한 영역의 고객에게 대용량 통합검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코난테크놀로지(대표 김영섬, www.konantech.co.kr)는 2007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 원을 돌파, 매출 100억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999년도 코난테크놀로지 법인 설립 이후, 9년여만의 이뤄낸 쾌거이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최근 2008년도 사업목표 및 각 부문별 사업계획 발표회를 통해 ▲검색시장의 기술 선도를 통한 시장 선도 ▲MAM 시장 선두 유지 ▲ 해외레퍼런스 확보를 2008년 주요 경영 의제로 선포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지난 2007년도 약 1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올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약 60% 성장한 175억 원을 목표로 잡았다. 이는 시장 성장률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로 이를 통하여 기업용 검색 솔루션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아울러 자사의 시장점유율도 함께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하여 올 연말까지 현재 임직원 130여명의 30% 규모인 40여명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기술 인력 확보를 통하여 내실을 다지고 고객 지원 강화 및 원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2006년 당시 70여명 수준이던 코난테크놀로지의 임직원 수는 2년 만에 두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코난테크놀로지 구자갑 대표이사 부사장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업에 있어서 연 매출 100억원 달성은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과도 밀접하게 관계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2008년은 검색솔루션 사업 1위 달성과 검색 포털 양강 체계 구축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끝 -

㈜코난테크놀로지 소개
코난테크놀로지(www.konantech.co.kr)는 형태소 분석을 기반으로 한 순수 원천 기술로 개발한 검색엔진 솔루션과 멀티미디어 자산 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1999년 4월 설립 이래 대규모 인터넷 비즈니스 부문에서부터 공공부문, 기업, 의료, 교육기관, 방송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그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 받아 '2004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활용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검색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검색시장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문의: 코난테크놀로지 마케팅팀(Tel: 02-3469-8553 / Email: marketing@konantech.com)